

차가운 디지털 대신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이 뜬다. 아날로그 세대인 중년층 뿐 아니라, 20대 젊은층까지 아우르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황혼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에는 20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송창식·윤형주의 노래를 들으며 아름다운 노랫말에 젊은이들은 가슴을 적신다.

감성문화, 세대를 넘어서다

▲착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
관객들에 따뜻한 울림

'그대를 사랑합니다' 상영관에서는 흐느낌이 끊이지 않는다. 10대~7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화려하고 스케일 큰 볼거리도, 유명 배우도 아니었다. 가난한 삶을 묵묵히 걸어온 두명의 할아버지와 두명의 할머니는 관객들에게 삶의 진삼과 곁없는 사랑을 보여줄 뿐이었다.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영화의 주 소비층인 젊은 관객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소재지만, 그들은 블로그로 트위터로 감동을 퍼내며 흥행의 일등공신이 됐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24일까지 110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지난달 17일 개봉 첫주 19만명을 끌어들이며 박스 오피스 6위에 간신히 올랐지만 그 다음주 관객이 38만명으로 늘어났다. 개봉 한달이 지났지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순위에 따르면 이번 주말(25~27일) 예매율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이순재·송재호·윤소정·김수미 등 주연 배우들의 연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기교 부리지 않는 잔잔하면서 따뜻한 화면과 투시드 폴, 옥상 달빛 등이 부르는 주제기도 가슴에 꼭꼭 박힌다.

▲송창식·윤형주 '세시봉 열풍'

지난해 MBC 오락프로 '놀러와'에서 촉발된 '세시봉 열풍'은 콘서트와 음반 판매로 이어지며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발매된 '세시봉 친구들:40년 우정을 노래하다:송창식, 조영남, 김세환, 윤형주' (3CD)는 예스 24 등 음반판매 사이트 가요순위에 올랐던 1~2에 랭크됐다. 또 24일 선보인 '세시봉 친구들:송창식, 윤형주, 김세환:43년 지기 친구들의 음악 그리고 이야기들(3CD) 역시 출판 즉시 가요순위 2위에 올랐다. 여기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원곡 팝송도 '추억의 뮤직씨통:조영남이 추천하는 세시봉 애창 팝송'이라는 타이틀로 출판됐다. 이 음반에는 국내에서 처음 CD로 발매되는 조영남의 '제비' 원곡 'La Golondrina' 등 팝송 40여곡이 실려 있다. 콘서트 열풍도 계속되고 있다. '세시봉 그의 45년-조영남'은 전주 한국소리문화전당(4월 24일), 순천문화회관(5월4일)에서 공연되며 지난 해말 광주에서 공연을 가졌던 송창식·윤형주·김세환의 '세시봉 친구들'은 오는 6월 3일 전주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송창식·조영남·김세환·윤형주 43년 친구들, 음악... 이야기...



▲첫사랑의 추억 '광화문 연가'



'옛사랑', '시를 위한 시'...
사랑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다

'항상 사랑하고, 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뜬 고 이영훈 작곡가의 노래는 1980년대 화염병과 최루탄 사이에서 방황하던 젊은이들에게 숨구멍같은 존재였다. '옛사랑', '시를 위한 시',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등 25년이 넘는 세월을 관통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노래들은 2011년 봄 뮤지컬 '광화문 연가'로 다시 태어나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아련한 사랑을 그린 '광화문 연가'는 관객들을 '그 때 그 시절'로 데리고 가 가슴 한편에 묻어둔 사랑의 기억을 꺼내보게 만든다. 이미 개막 전부터 창작 뮤지컬로는 드물게 4만장을 판매했던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지난 20일 개막 후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현재 국내 최대 티켓 판매 사이트인 인터파크에서 뮤지컬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순항중이다. 광주 공연은 오는 4월22~24일까지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정아 자전 에세이 '4001' 후폭풍

초판 5만부 대부분 팔려... 정치적 의혹도

신정아(39)씨의 자전 에세이 '4001'(사월의책 펴냄)이 각종 논란 속에서 초판 5만부 출고와 완료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르기까지 각종 구설로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서 책 구하기 어려워>=24일 YES24, 교보문고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 따르면 '4001'에 대한 주문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 YES24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모두 3500부가 팔려 단숨에 주간 베스트셀러 2위로 뛰어올랐으며 교보문고에서는 2200부가 팔렸다. 광주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총장서림의 경우 출간 소식과 동시에 확보량 30여권이 진열대에 오르자마자 판매되었으며, 영풍문고도 24일 하루에만 50부가 모두 나가 책 구입이 어려운 상태. 영풍문고 관계자는 "책이 순식간에 나가 오늘 300부를 주문했지만 서

을 지역 판매량이 워낙 많아 언제 책이 입고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책 판매 인세를 10%로 계약, 초판 판매분만으로 7000만원 가량의 인세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등 논란=정치권 일각에서는 책 출간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책에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이 실명과 이니셜로 등장한 만큼 일각에서는 출판사 안희근 대표가 아권 인사와 친분이 있으며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24일 책 출간에 정치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법조 안팎에서는 신씨의 책에 포함된 내용들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한·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신씨의 책에 성추행 사실이 언급된 전직 유력일각 C 기자는 이미 신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지영, 대필 의혹 제기

작가 공지영씨는 신정아씨의 책에 대해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공씨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난 취재 대신 비문학인의 수필을 거의 다 읽는다"며 "신정아 씨의 책을 읽는데 생각보다 지루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그냥 기자들이 호들갑 떨며 전해주는 이슈들만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듯"이라며 "서문과 본문의 문장이 너무 다르다. 대필 의혹이 상당히 많다"며 "논문 리포트도 대필이라는 데"라며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아트광주' 공동 조직위원장에 광주문화재단 노성대 대표이사

광주문화재단 노성대 대표이사가 '아트광주 2011'(9월1일~4일·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아트광주)의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 금호고속 김성삼 대표이사, 광주상공회의소 박흥석 회장, 광주시립미술관 황영성 관장 등 3명이 아트광

주 의결기구인 조직위원회의 신규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트광주 행사 주최 측인 광주문화재단은 24일 2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과 예산안(1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아트광주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세부실행 계획을 세우고, 6월 참가 화랑과 작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시는 100여 개의 갤러리, 대안공간, 프로젝트 그룹 등이 참여하는 개별 부스 전시 등으로 펼쳐진다. 또 신진 작가와 그룹 중심의 아티스트 존, 기업과 예술의 창조적 관계를 모색하는 기업 존도 설치된다. 이 밖에 관람객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을 벌이는 대중 강연과 토크프로그램 등이 부대행사로 열린다. 문의 062-670-749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극단 '터' 광주연극제 3관왕

'막차타고 노을을 보다' 작품상·희곡상·남자연기상 수상

지난 23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막을 내린 제25회 광주연극제에서 극단 '터'의 '막차 타고 노을을 보다'가 최우수작품상과 희곡상(김창일), 남자연기상(정일공)을 수상했다. '막차 타고 노을을 보다'는 콘택, 작은택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주인공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심사위원들로

부터 "인물 구성이 흥미롭고, 허구의 인물인 저승사자가 나오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됐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작은 오는 6월 3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제29회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여자 연기상은 '협오양처'에서 열연한 양정연(극단 얼·아리)씨가



정일공 양정연 수상했으며 극단 유피씨어터의 김해리씨는 신인연기상을 받았다. 연출상과 무대미술상은 양태훈(극단 얼·아리)씨와 김병대(푸른연극마을·매화연정)씨에게 돌아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스마트한 바로 지금! 세상이 열린다!

ALL-IN-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

오프라인 지면광고에 수록된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고 또한 번외정보 어플을 통하여 번외정보 검색이 가능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고객의 배치를 극대화하는 한국전화번호부의 새로운 온·오프라인 통합서비스입니다.

올인원 서비스 상담 문의 : (062) 514-1144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KOREA TELEPHONE DIRECTORY CO., LTD.